"지방자치 수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"

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올해 1월 시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・주민주권 강화 등 담아

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 라 지방자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지 주목된다.

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"지방자 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지방자치 2.0시대가 본격 시작됐 다"고 평가하고 있다.

자치분권위는 지난 5월 발간된 자치분권 백서에서 "30년 전에 시 작된 자치분권 1.0은 선출직 단체 장과 지방의회 관권선거를 예방하 는 것이 1차적 목표였으나, 자치분 권 2.0 시대는 지방자치의 질적 내 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진일보하는 것"이라고 의미를 부여

2020년 12월 9일 전부개정돼 올 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,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, 중앙-지방 협력관계 정립, 주민주 권 강화 등이다.

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임방법을 포함해 의회,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. 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됐다. 조례·규칙의 개 정·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.

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 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.

종 합

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 게 부여됐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. 아울 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 개하고.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 체화됐다.

이외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가 마련되며 법 시행 후 지난 4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·울·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다.

지방자치법 개정은 일반 국민들 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된 것으 로 분석된다.

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문 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

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'자 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'(전국 거 주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대상. 표본오차 95% 신뢰수준 ± 2.8%p)에 따르면 국민의 88.4%가 자치분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, 국민의 절반 이상 인 55.7%가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 다고 답했다. 또 국민의 86.7%는 자 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.

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 야 한다는 응답은 46.7%로 조사됐 으며,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9.9% 수준이었다. 향후 자 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'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' (23.6%)와 '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협력 강화'(22.8%)가 가 장 높았다.

<공동기획:자치분권위원회> 부미현기자



제주도.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'우수상'

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'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 체 일자리대상' 우수사업 부문(장 관상)에서 '문화콘텐츠 더블업 동 반성장 지원' 사업이 우수상을 수 상했다고 21일 밝혔다. >>사진

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은 2021 년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혁신프로 젝트 사업이다. 제주도는 제주영 상 · 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을 바탕 으로 도외 문화산업 분야 기업과 기술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

경쟁력과 핵심 비즈니스 모델 강화 로 외부 의존도를 낮춰 기업과 지 역인재, 문화콘텐츠산업의 동반성 장을 목표로 기획했다.

이번 사업에는 11개 기업이 참가 했으며 31명 신규 고용창출, 참가 기업 고용유지(100%),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.

이번 수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기관 표창,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 량강화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를 받는다.

이태윤기자 Ity9456@ihalla.com

농촌자원 활용 새 비즈니스 모델 구축

제주도, 2억3000만원 투입 8개소 조성 농촌가치 확산

제주지역의 농촌자원을 활용해 국 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치유농장 이 도내에 조성되면서 향후 제주농 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 를지 주목된다.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 해 사업비 2억3040만원을 투입해 '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사 업'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.

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 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안정 과 휴식, 치유에 대한 도시민의 관 심이 급증하고 농업・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. 이에 농업 기술원은 제주농업의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・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 한 치유농장 8개소를 조성했다.

도는 앞서 지난 2월 대상자로 농 업회사법인 제원하늘, 금지게 영농 주식회사, 환상숲곶자왈농장, 올리 못, 아트팜, 행복스케치, 일출봉아 로니아, 사월의꿩 등을 선정했다.

사업 내용은 치유농장 조성, 제 주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보건·복지·교육 등 치유 관련기관 (의료시설, 요양시설 등)과 네트워 크 구축, 치유서비스 참여자 효과 측정 등이다.

조성된 치유농장은 수요자에 맞 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시민의 신체적・정신적 건강에 기 여하며 제주 농산업의 다각화와 농 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치유농업의 효과로 아동·청소년 은 안정감 및 책임감과 유대감 향 상, 정신적 질환자는 약물 의존성 감소와 대인관계 능력 향상, 일반 성인은 스트레스 감소 및 치매질환 치유 등이 꼽힌다.

또한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에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일 자리 마련을 통한 농촌 활력화 증 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농업기술원은 향후 치유효과 데 이터를 구축해 기존 농촌체험과 차 별성을 높이고 농장별 특유의 자원 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 을 키워나갈 계획이다. 이태윤기자

허용진 도당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제주자치도당

국민의힘 제주특 별자치도당위원 장에 허용진(사

진)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 출됐다.

국민의힘 제주

도당은 20~21일 이틀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주도당 대회를 개최 해 허용진 후보를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.

온라인 투표 및 현장 투표에 대 한 최종 개표결과 허용진 후보는 형 시대'를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 위한 규제 개선으로는 국제회의 복 194표(76.98%), 현덕규 후보는 58 로 선정했다. 표(23.02%)를 득표했다.

음 주 중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작하게 된다.

이태윤기자 Ity9456@ihalla.com

"국민여행적금 도입… 방한 여건 조속 정상화" 새정부 5대 핵심 과제 등

문체부, 어제 대통령 보고

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새 정부 업 무보고에서 국민여행적금 제도를 도입하고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.

문체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이 포함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 고했다.

문체부는 '문화가 여는 지역 균

무비자 입국, 국제선 증편 등 관 허용진 도당위원장 당선자는 다 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, 한국방문의 해 승인절차를 거쳐서 바로 임기를 시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 원·확대하기로 했다.



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 고를 받고 있다. 왼쪽부터 박보균 장관, 윤 대통령, 김대기 비서실장, 안상훈 사회수석. 연합뉴스

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,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.

지역 고유의 문화예술・관광・산 업·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 시를 조성하고 뮤지컬 콤플렉스(대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구),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(광주,

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집

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

(사)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

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

e-mail:jejubh16@daum.net
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

동행 할 것입니다.

. 신청 시 제출서류

문의 및 신청

TEL(064)752-3300

전남, 부울경)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·관광·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 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 다는 목표다.

문체부는 또 자주 가고, 오래 머 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 성화하겠다고 밝혔다.

서울=부미현기자







